

7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다 했으면 8일차 달라고 메일주소와 함께 문자주세요~!

국어 영역

[1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으며, 인간은 행복에 이르기 위해 ‘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덕’은 인간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그는 동물이나 식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기능이 이성의 활동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이성의 활동에 있어서의 ‘탁월함’, 즉 이성의 본래적 기능인 사유와 추론에서의 탁월함과 더불어 비이성적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능력에 있어서의 탁월함에 있다.

(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와 추론에서의 탁월함을 ‘지성의 덕’이라고 하며, 지성의 덕은 오랜 시간의 교육과 이론적 탐구를 통해 길러진다고 한다. 한편, 비이성적 부분인 ㉠ 감정과 욕망이 ㉡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능력에 있어서의 탁월함을 ‘품성의 덕’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품성의 덕은 부단한 실천을 통해 길러진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감정,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이성의 명령에 따라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품성의 덕은 ‘중용’이다. 중용은 욕망, 감정, 행위에 있어서 넉넉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알맞음의 극치, 또는 최적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중용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동기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중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은 상대적인 중간점이다. 이렇듯 중용이라는 것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를 정확하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 ‘실천적 지혜’는 지성의 덕 중 하나로,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중용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적 지혜는 품성의 덕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실천적 지혜라는 이성적 명령에 따라 어떤 욕망이나 감정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심사숙고’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심사숙고를 통해 욕망, 감정, 행위에 있어서 중용에 도달할 수 있다.

(마)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근본이 되는 덕을 따르는 일이 지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경고하며, 그냥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실제로 유덕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된다.

국어 영역

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인간의 행복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중용'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실천적 지혜'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덕한 행동의 실천을 중시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 사례의 A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례]

장군 A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용기를 갖고 싸워 누구보다 많은 공을 세웠다. A의 부대가 국경을 지키고 있던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 왔다. A는 적군의 병력과 무기, 아군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략한 적군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보고 병사들을 데리고 일단 후퇴하여 후일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를 두고 용기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 ① 실천적 지혜에 따라 심사숙고하여 행위하였기 때문입니다.
- ②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③ 중용에는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 ④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 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용기 있는 일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아리스토텔레스는 ㉠와 ㉡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 ① 건축가가 설계도를 바탕으로 집을 짓듯이, ㉠를 바탕으로 ㉡를 형성해야 한다.
- ② 제자가 스승의 업적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듯이, ㉠를 함양하여 ㉡를 능가해야 한다.
- ③ 기름과 물이 서로 섞이지 않은 채로 있듯이, ㉠와 ㉡는 서로 독립적으로 있어야 한다.
- ④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듯이, ㉠는 ㉡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

4. 밑줄 친 단어 중 '넘침'과 '모자람'의 의미가 모두 있는 것은?

- ① 참석자의 과반수(過半數)가 그 안건에 찬성하였다.
- ② 수도권에 인구가 과다(過多)하게 집중되고 있다.
- ③ 과도(過度)한 지출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 ④ 과소비(過消費)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 ⑤ 과부족(過不足)이 없이 꼭 들어맞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의 표장(標章)을 말한다. 어떤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아 배타적 독점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장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의 요건'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명칭이란 사과, 소금 등 통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명칭이라 하더라도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또는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관용하는 상표란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지만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하여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용 표장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될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생산 방법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표장만으로는 그 상품의 출처가 식별될 수 없으며, 경쟁업자도 자기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표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가명이나 대도시명 등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박'이나 '이'와 같이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법인명 등 흔히 있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도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품의 산지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국어 영역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단체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표장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통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장이 아니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기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그것은 이미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쟁 업자들의 자유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상표 사용을 막아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이 있는데, 이는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다. 국기나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은 공공 표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 청원이나 원서를 낸.

5.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② 보통명칭 표장과 관용 표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 ③ 어떻게 하면 보통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가?
- ④ 출원한 상표의 식별력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인정받는가?
- ⑤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왜 등록을 받을 수 없는가?

6. 윗글에 근거할 때, 출원하려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 ①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 ② 이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출원한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이것은 동업자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상표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④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을 거야.
- ⑤ 이것은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7.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김 씨는 특허청에 산지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지만 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러자 김 씨는 자신이 30년 전부터 이 상표로 상품을 생산해 왔다는 자료와 함께 출원 전에 지역 신문에 자신의 상품이 소개되었던 기사, 그리고 특허청의 등록 거절 소식이 전국 신문에 보도되었던 기사를 근거 자료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심판 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에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였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

- ① 청구인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청구인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 ②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후에는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③ 청구인의 상품이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④ 청구인의 상표가 처음에는 관용하는 상표였지만 현재 기술적 상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⑤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전에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8. 윗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상표법 제53조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때 ㉡ 먼저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디자인권 등과 저촉*되는 경우, 그 상표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소유한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등록 상표를 남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금지권은 유지되므로,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촉: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가 서로 부딪치거나 모순됨.

- ① ㉠과 ㉡는 모두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 ② ㉠은 누군가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는 그렇지 않다.
- ③ ㉠은 소유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는 다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의 보호를 받는다.
- ④ ㉠은 출원된 뒤부터 상표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지만, ㉡는 출원 이전이라도 해당 소유권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 ⑤ ㉠은 그보다 늦게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는 그와 저촉되는 등록 상표의 사용을 제한한다.

국어 영역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집이 거기쇼?”

고깔모자를 쓴 사람은 색안경이라면 질색이다. 그에겐 색안경을 쓴 사람은 형사다. 그리고 형사는 기피자를 단속한다. 그는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까지 매달 월급날이면 정기적으로 형사의 ‘예방’을 받은 적이 있다.

“예? 예. 선생님은요.”

“나요? 난 거긴 배꼽 따고 처음이오.”/“호 호 호.”

여자의 웃음 소리는 김 씨의 상상을 망쳐버린다. 그는 장님이 되는 생각을 비장한 마음 없이는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야흐로 절정에 도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킬킬거리는 여자의 ㉠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살찐 여자. 그리고 그는 안마장이. 그러나 그는 별로 서운치 않다. 포동포동한 여인을 안마한다는 생각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를 부르는 여자는 그의 애인이고 킬킬거리며 웃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그는 그녀의 남편을 안마한다. 그녀는 바로 곁에서 시중듣고 있지만 안경을 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안마를 끝마친다. 그녀는 그에게 몇 푼의 돈을 쥐여준다. 그는 그것을 받아놓고 다시 길거리로 나온다. 그리고 통소를 꺼내 불기 시작한다.

“아, 이제 떠날래나?”

창문인 줄만 알았던 앞쪽의 유리창 일부가 밑에까지 움푹 패이면서 열리자 장갑 낀 손이 쑥 들어오더니 턱과 뺨 위로 수염이 검실검실 돋은 운전사의 머리를 차 안으로 끌어들인다. 머리가 들어오자 잠바가 따라 들어오고 그 뒤로 호주머니께가 허영게 닳은 낡은 코르덴 바지가 딸려 들어온다. 운전사는 자리에 앉자 한 손으로 운전륜을 잡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본다. 손님 머릿수가 적은 것이 눈에 안 차는 모양이다. 끄 하고 돌아앉아서 한쪽 어깨를 기울이고 스위치를 넣더니 부르릉 발동을 건다. 삼십 분 동안이나 기다린 손님들이 오히려 미안해 해야 할 모양이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수가 적은가! 정원 사십팔 명에 한 백 명쯤 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북적거리고 있었더라면 운전사가 조금은 미안해했을지도 모를 텐데.

“애, 이제 슬슬 떠나보련?”

잠바를 입은 사나이는 엉덩이부터 차에 오르고 있는 여차장을 쳐다보고 있다.

“네, 곧 가요.”

차장은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이 전혀 없다.

“아직 안 가?”

“곧 가요.”/“여기가 중국집인 줄 아니?”

“왜 내가 중국집에 있어요?”

㉡ 차장은 비로소 뒤를 돌아본다.

“너, 곰이로구나?”/“내가 왜 곰이어요? 아저씨 뉘데요?”

“나? 난 네 할배다.”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고깔모자는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왼쪽으로. 여자는 그럴 때마다 창문 쪽으로 피하는 척한다. 그리고 미안한 생각에서 그를 쳐다보아준다.

“군하리엔 뭇 하러 가세요?”/“놀러요.”

“일행이세요?”

“예.” ㉢ 그는 목소리를 낮춘다. “저 사람은 늙은 대학생 김 씨. 이쪽은 세무서 직원 이 씨. 그리고 난 얼마 전까지 국민학교 선생. 성은 박 씨. 대개 이렇소.”

“정말 묘하게 어울리셨어요. 친구분들이세요?”

“우린 한 집에 살고 있지요.”/“어머, 그러세요?”

“그럼은요. 우리집에 저 두 사람이 하숙하고 있지요.”

김 씨는 차창 유리에 이마를 댄다. 차체의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어온다. 그는 이마를 댄다.

㉣ “이 차도 달릴 줄 아는군. 난 세워두려고 만든 줄 알았더니.”

“그게 다 우리 차장이 ‘오라이’ 한 덕분이지. 애, 안 그래?”

잠바를 입은 이 씨는 나일론 천의 윤이 나는 검은빛 바지를 입은 여차장의 엉덩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차장은 아직 화가나 있다. 이 씨는 잠바 호주머니에서 껌을 한 통 꺼낸다. 김 씨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달리는 버스는 유쾌하다. 속이 훑트이는 것이 만사가 술술 풀릴 것 같다.

“너 이거 먹을 줄 아니?”

이 씨가 껌을 하나 쑥 뽑아서 차장의 등뒤로 들이민다. 차장은 뒤를 돌아보고 피식 웃는다.

㉤ “곰이 어떻게 껌을 먹어요?”

“뭘? 하 하. 제법이구나. 됐어. 곰은 원래 재주를 잘 부리지. 먹어뉘. 손해될 거 있니?”

차장은 껌을 받는다. 이 씨는 옆에 있는 김 씨에게 그리고 뒤에 앉은 박 씨와 그 옆의 여자에게까지 고루 껌을 하나씩 권한다. 그리고 남은 하나를 꼬집어내서 껌질을 벗긴다.

박 씨는 여자와 급속도로 친해지고 있다.

“집이 원래 군하리요?”

“아뇨. 인천예요.”

“아, 이사하셨군.”

“아뇨, 그냥 거기서 살아요. 엄마하고 언니하고... 그렇게 그냥 셋이 살어요.”

“인천서요?”/“아뇨. 군하리서요.”

“인천엔 아무도 없어요?”

㉥ “아뇨. 거기두... 아이,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참, 그렇군.”

참 그렇다니. 김 씨는 실소한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지만 등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죄다 듣고 있다. 그는 항상 시치미를 뚝 떼고 있기를 좋아한다.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모른 척. 그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이다. “당신 아무래도 수상한데?” 뭘가? “어제 두시에서 다섯시까지 사이에 어디에 있었수?” 건 왜 물우? “안 되지. 난 못 속이우. 박형은 속여두 난 못 속인 단 말이우.” 허 허 허 허.

그는 슬쩍 이 씨를 옆눈질해 본다. 제 비록 약다 하나 이쪽에서 가가대소만 하고 있는 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오.

“앉어, 응? 서 있으면 몸에 해롭지.”/“괜찮아요.”

“아, 지금이야 괜찮지. 이 댐에 커서 시집갈 때 해롭단 이야기야.”

차장은 얼굴을 붉히고 중간쯤에 있는 빈자리에 가서 앉는다. 이 씨는 빙그레 웃는다. 실속이 없는 줄 알면서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는 기분이 좋다. 그는 잠바 목 속에서 하얀 목도리를 조금 꺼내올려 컷부리를 포근히 감싸주고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담배를 뽑아 문다. 불을 붙일 생각을 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본다. 뿌퉁이 흐린 하늘에는 눈발이 이따금씩 희끗거리고 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뒤에 앉은 박 씨만이 낮은 목소리로 여자와 소근거린다. 몇쩍은 몇날의 ㉦ 웃음소리만 가끔 엔진 소리 위로 솟아오를 뿐, 대체로 무슨 이야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 서정인, 「강」 -

국어 영역

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여차장'은 버스가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출발한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해 있다.
- ② '김 씨'는 '이 씨'의 옆에, '박 씨'는 '이 씨'의 뒤에 앉아 있다.
- ③ '이 씨'는 '여자'에게 군하리에 가는 이유를 묻고 있다.
- ④ '운전사'는 손님들에 대해 미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 ⑤ '김 씨'는 일행이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이다.

1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하던 상상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은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있다.
- ③ ㉠으로 인해 조성된 긴장감은 ㉡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
- ④ ㉠은 인물에 대한 호감을 강화하고, ㉡은 인물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인물의 상상 속에서만 들리는 것이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물에 대해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 ③ ㉢: 비꼬는 말투를 통해 버스가 늦게 출발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다.
- ④ ㉣: 상대방이 앞에서 자신에게 했던 농담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윗글에서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제시된다.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제자리에서 걸돌며 진정한 의미의 소통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소설에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되는데 윗글에서는 사건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방해하는 서사적 장치들도 사용되고 있다.

- ① '박 씨'에 대한 정보는 '고깔모자', '기피자', '전직 교사'와 같이 부분적인 것들이 흩어져서 제시되고 있다.
- ② 한집에 사는 '김 씨', '이 씨', '박 씨' 들은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지만 진정한 소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③ '이 씨'가 '여차장'에게 무의미한 농담을 건네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박 씨'와 '김 씨', '이 씨' 등으로 서술 대상을 계속 바꾸어 서술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 ⑤ '김 씨'가 장님이 되는 상상에 빠져드는 장면이 다른 인물들의 대화에 바로 이어져서 서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의 언덕을 달리는 찻간에
조고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앉았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만
너의 가슴은 얼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지금
차는 차대로 달리고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 건너 벌판엔
나의 짧은 냇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듯 얼어붙은 듯 섰으니
욕된 운명은 밤 우에 밤을 마련할 뿐

[A] { 잠들지 말라 우리의 강아
오늘 밤도
너의 가슴을 밟는 못 슬픔이 목마르고
얼음길은 거칠다 길은 멀다

길이 마음의 눈을 덮어줄
검은 날개는 없느냐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와 마주앉은
나는 울 줄 몰라 외롭다

- 이용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

(나)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B] {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국어 영역

(다)

㉠하는 수 없이 낙향해 버리고 만 것이 어느덧 철 수가 바뀌었다. ㉡날마다 산을 바라보고, 밤마다 물소리를 이웃하는 것밖에, 나는 책 한 권 바로 읽지 못하고, 소란한 세상을 병든 몸으로 숨어서 살아간다. 친한 벗에게는 편지 한 장 오지 않고, 들리는 소문이란 쫓기는 백성의 울부짖음밖에 아무 것도 없었다.

어찌지 못할 설움 속에 그래도 울먹거리는 마음을 다소 가라앉히기는, 노란 국화가 피면서부터였다. 여름에 미리 파 뒀던 한 평 남짓한 못에다 뒤결 미나리밭에서 물을 따 대었다. 산에 가서 기이한 돌을 가져다 쌓기도 하고, 강가에서 흰 모래와 갈대 몇 포기도 날라 온 보람이 있어, 방 들 부엌 하나밖에 없는, 이름 그대로 나의 외로운 초가삼간엔 하루아침에 가을이 왔다. 무엇을 하며, 누구와 더불어 얘기하나? 무척은 지루하고 고달프던 세월도 소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줄달음을 치는 듯하였다. 쓸쓸한 벗 국화와 갈대꽃이 창 밖에 와서 기다려도, 이 내 어찌지 못할 설움을 그들도 하소연하지 않는가? 높은 구름이 못 위에 어리는 날이면, 창을 열고 먼 산을 바라다가 또 꽃을 바라고, 내 마음의 애무(愛撫)는 이 가냘픈, 그러나 칼날 같은 마음 앞에 적이 설레었다.

㉢서릿발이 높아지자 국화는 더욱 청초해 가고, 나는 국화를 바라보단 불현듯 맨발로 섬돌에 내리도록 서글퍼졌다.

논밭이 가까운 나의 집에는 이따금 메뚜기가 풀숲으로 뛰어 든다. 수탉은 메뚜기를 잡으러 쫓아가다간 놓쳐 버리고, 담장 위에서 꼬끼오 하고 길게 목청을 뽑는다. 무척 고요한 대낮에 낮답 소리가 끝나면, 마음은 더욱 고요해진다.

서울 성북동 아무 운치도 없는 집을 꾸미라고 근원 화백(畫伯)이 보내 주신, 손수 가꾼 국화분을 하룻밤 자고 나니 닭들이 꽃과 잎을 모조리 따 먹고 부러진 줄기가 뒷마루에 떨어졌더니, 닭도 시골 닭은 국화를 먹기는커녕 국화 그늘 아래 즐거이 별을 쪼이며 준다. 사람이 콩깍지만 먹고 살거니, 미물이 꽃을 먹는 풍류를 아니 배울 수 있겠는가 하고, 그때는 웃을 수밖에 없었으나, ㉣닭만큼도 국화를 즐기지 못하는 지금의 나의 마음을 국화는 알 것이다.

아아, ㉤국화가 나에게 한껏 슬픔을 더해 준다기로소니, 영혼과 육신이 함께 목마른 지금의 나에게 국화가 없으면 낙엽이 창살을 휘몰아치는 기나긴 가을밤을 어떻게 견디랴.

- 조지훈, 「무국어(撫菊語)」 -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화자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계절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공간의 변화에 따른 정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1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청자는 의인화되어 있다.
- ② [B]는 특정 어구를 반복하고 있다.
- ③ [A]와 [B] 모두 구체적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
- ④ [A]는 명령형 어미, [B]는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A]는 영탄적 어조, [B]는 냉소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15.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과제] (가)와 (다)는 모두 일제 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가)와 (다)에서는 화자 또는 작가가 처한 시대 현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서 비롯된 심적 상황이 나 태도 등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 근거가 되는 구절을 찾아보자.

- ① (가)의 ‘죄인처럼 수그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과 (다)의 ‘병든 몸으로 숨어서’ 살아가는 작가의 모습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 ② (가)에서는 ‘두만강’이 화자에게, (다)에서는 ‘국화’가 작가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은 (다)의 ‘쫓기는 백성의 울부짖음밖에’ 없는 세상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밤 우에 밤’에서도, (다)의 작가는 ‘지루하고 고달프던 세월’에서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의 ‘울 줄 몰라 외롭다’와 (다)의 ‘어찌지 못할 설움’에서 화자와 작가의 심적 상황을 느낄 수 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차이를 동반하는 반복, 즉 변주를 중심으로 행과 행, 연과 연이 구조화되어 있다. 각 연에서는 반복되는 시구들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시구가 점층적으로 덧붙여지고 있으며, 그러한 변주가 연과 연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변주를 통해 상황이나 화자의 태도가 구체화되고, 의미의 점층적 강화가 이루어진다.

- ① 1연에서는 ‘떨어진’, ‘마당 위에 떨어진’이 점층적으로 덧붙여지면서 ‘눈은 살아 있다’의 상황이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 ② 1~2연으로 이루어진 전반부의 내용은 3~4연으로 이루어진 후반부에서 변주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1연과 3연은 ‘눈은 살아 있다’라는 시구를 중심으로, 2연과 4연은 ‘기침을 하자’라는 시구를 중심으로 변주되고 있다.
- ④ 2연의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는 4연의 ‘눈을 바라보며’로 변주되면서 의미의 점층적 강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⑤ 4연의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에서는 ‘기침을 하자’가 ‘가래라도 뱉자’로 변화되면서 거기에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와 ‘마음껏’이 덧붙여져 있다.

국어 영역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낙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었음을 ‘하는 수 없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 동일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날마다’, ‘밤마다’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 가을이 깊어질수록 국화의 청초함이 돋보이게 됨을 ‘더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④ ㉣: 국화를 여유 있게 즐기지 못하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닭만큼도’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 ⑤ ㉣: 국화를 보면서 점점 위축되어 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한갓’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해설

④①④⑤④
 ②⑤⑤②①
 ②②③⑤④
 ④⑤

[1~4] (인문) 류지한, 「에우다이모니즘에서 지·덕·복의 관계」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한 행복(eudaimonia)의 개념을 ‘덕’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을 통해 인간 고유의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 곧 ‘행복’이며, 이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라고 생각한다.

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

(라)는 ‘실천적 지혜’가 어떻게 품성의 덕과 관련을 맺는지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천적 지혜’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의 ‘행복’은 일시적, 주관적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덕’에 따르는 활동을 의미한다. ② (나)는 이성의 두 가지 활동에 따라 각각 발휘되는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의 의미를 밝히고, 중용이 절대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마)는 행복이 덕을 따르는 것인데, 이것이 단지 덕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덕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에서 제시된 사례는 장군 A가 실천적 지혜로써 중용을 취한 예이다. 결과를 보면 후퇴하였지만, 후퇴라는 행위를 선택한 과정에서 A가 중용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능한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심사숙고를 통해 후퇴를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③ 많은 이의 죽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천적 지혜를 통한 심사숙고의 결과 A가 후퇴를 선택한 것이므로 중용에 도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후퇴하였기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중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선택 과정에서 실천적 지혜로 심사숙고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⑤ 과거의 공적을 인정하는 것은 현재의 행동이 용기라는 중용에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어렵다.

3. [출제의도] 내용을 근거로 추론한다.

감정, 욕망, 행동이 지성의 덕 중 하나인 실천적 지혜의 명령에 따를 때 품성의 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품성의 덕은 지성의 덕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이를 따라야 한다.

4.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한다.

욕망, 감정, 행위에 있어서 넘치고 모자라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과부족(過不足)’이 된다. ‘과부족(過不足)’은 ‘한도에 넘거나 모자람’이라는 뜻이다.

[오답풀이] ① ‘과반수(過半數)’는 ‘절반이 넘는 수’를 뜻하는 단어이다. ② ‘과다(過多)’는 ‘너무 많음’을 뜻하는 단어이다. ③ ‘과도(過度)’는 ‘정도에 지나침’을 뜻하는 단어이다. ④ ‘과소비(過消費)’는 ‘분수에 넘치게 많이 써서 없앴’을 뜻하는 단어이다.

[5~8] (사회)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식별력’을 중심으로 하여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의 요건’과 제7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이 글에는 출원한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받는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④는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③ 2, 5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이해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대해 판단한다.

넷째 문단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산지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단체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7. [출제의도] 이해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에서 청구인 김 씨는 등록 출원한 자신의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근거 자료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인용된 관례에 따르면, 김 씨가 제출한 자료들은 상표 출원 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8. [출제의도] 관련 있는 다른 상황과 대비한다.

㉠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가 있으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은 그보다 늦게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 ‘먼저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디자인권’이 있으면, 그와 저촉되는 상표의 상표권자는 그 상표를 사용할 때 해당 ‘특허권·디자인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는 그와 저촉되는 등록 상표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9~12] (현대소설) 서정인, 「강」

이 작품은 한 집에 사는 세 사람이 버스를 타고 시골 혼가를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이들은 결혼식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지만 정작 소설에서 결혼식 장면은 생략되어 있다. 뚜렷한 갈등도 사건도 담고 있지 않은 이 작품은 우연적, 계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 전개와 이완된 서사 진행, 답답한 풍경들을 통해 그 만큼 씩의 사연을 가진 초라하고 불품없는 인간 군상들의 삶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9.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이 씨’가 껌을 나눠주는 장면에서 ‘이 씨는 옆에 있는 김 씨에게 그리고 뒤에 앉은 박 씨와 그 옆의 여자에게까지’로 서술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버스가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출발한 것에 대해 기분이 상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은 ‘여차장’보다 ‘운전사’에 가깝다. ‘여차장’의 반응은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여자’에게 군하리에 가는 이유를 묻고 있는 인물은 ‘이 씨’가 아닌 ‘박 씨’이다. ④ ‘손님 머릿수가 적은 것이 눈에 안 차는 모양이다.’, ‘손님들이 오히려 미안해해야 할 모양이다.’의 서술로 미루어 운전사가 승객에게 미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일행이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은 ‘박 씨’이다.

10. [출제의도] 작품의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여자의 웃음 소리는 김씨의 상상을 망쳐 버린다.’는 구절을 통해 ㉠이 ‘김 씨’가 장님이 되는 상상의 흐름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은 ‘박 씨’와 ‘여자’의 대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웃음 소리가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과 ㉡ 모두 현실에서 들리는 소리이다.

11. [출제의도] 작품의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⑥는 여자와 심리적으로 멀어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박 씨’)의 말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것에 가깝다.

[오답풀이] ①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여차장이 ‘비로소’ 뒤를 돌아보았다는 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③ 몰랐던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버스가 늦게 출발한 사실에 대한 불만을 비꼬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앞서 ‘이 씨’가 ‘너, 곰이로구나?’라고 했던 농담을 활용하여 맞받아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세요?’란 말을 통해 여자가 자신에 대해 ‘박 씨’에게 말하기를 꺼려함을 알 수 있다.

12. [출제의도]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윗글에서 ‘김 씨’, ‘이 씨’, ‘박 씨’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이들은 일행인 서로에게보다 처음 만난 이들에게 주로 말을 걸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박 씨’에 대한 정보는 작품 속에서 한번에 주어지지 않는다. 인물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가 흩어져서 제시되고 있다. ③ ‘이 씨’와 ‘여차장’이 나누는 대화는 가벼운 농담에 가까우며 관계의 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작품에는 인물들의 상상이 다른 인물들의 대화에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자연스러운 서사의 흐름을 방해하고 실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간보다 서술자의 서술로 이루어진 시간을 길게 하는 서사의 지연을 낳는다.

[13~17] (현대시, 수필) (가) 이용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나) 김수영, 「눈」, (다) 조지훈, 「무국어」

(가) 이용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이 시는 일제 강점 하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고향을 떠나가면서 느낀 정서를 '두만강'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 김수영, 「눈」

이 시는 '눈'과 '가래'의 대비를 통해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핵심 구절이 변형·반복되는 이 시의 구조는 운율감을 형성할 뿐 아니라 시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 조지훈, 「무국어」

이 작품은 혹독한 시대 상황에 쫓겨 하는 수 없이 낙향을 해야만 했던 조지훈이 고향에 내려가 쓴 수필이다. '무국어(無菊語)'는 국화를 어루만지며 하는 말이란 뜻으로, 작가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화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수필이다.

13.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의 '얼음길은 거칠다', (다)의 '서릿발이 높아지자', '낙엽이 창살을 휘몰아치는 기나긴 가을밤' 등은 모두 계절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에는 음성상징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와 (다)에는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공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 (나), (다)에서는 상승 이미지나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느낌을 강화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14. [출제의도] 두 작품의 표현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A]에서는 '강아'에서 영탄적 어조를 일부 엿볼 수 있다. 한편, [B]에서 냉소적 어조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는 '강'이 의인화되어 있다. ② [B]에는 '기침을 하자' 등의 어구가 반복되고 있다. ③ [A]에서는 '강'을, [B]에서는 '젊은 시인'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④ [A]에는 '잠들지 말라'에 명령형 어미가, [B]에는 '기침을 하자'에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다.

1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일제 말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외적 맥락을 바탕으로 두 작품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의 '밤 위에 밤', (다)의 '지루하고 고달프던' 세월은 모두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죄인처럼 수그리고'와 (다)의 '병든 몸으로 숨어서'는 일제 말기의 시대 현실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② (가)와 (다)에서 '두만강'과 '국화'는 각각 시대 상황으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는 화자와 작가에게 마음의 의지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과 (다)의 '쫓기는 백성의 울부짖음밖에 없는 세상'은 모두 혹독한 식민지 상황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울 줄 몰라 외롭다'에서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이, (다)의 '어찌지 못할 설움'에서는 화자의 설움이 나타나 있다.

16. [출제의도] 시의 구조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2연의 '눈더러 보라고'에서 '보라고'의 주체는 '눈'이고 '마음놓고 마음놓고'에서 '마음놓고'의 주체는 '젊은 시인'이다. 그런데 4연의 '눈을 바라보며'에서 '바라보며'의 주체는 '젊은 시인'이다. 따라서 이 두 시구의 의미가 다르며, 둘 사이에 의미의 점층적 강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1연에서는 '눈이 살아 있다'는 중심 구절에 수식어가 덧붙어서 각 행이 점층적으로 변주되고 있다. ② 전반부인 1, 2연은 후반부인 3, 4연에서 변주되고 있다. ③ 1, 3연에서는 '눈은 살아 있다'에 '떨어진 눈은',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등의 시구들이 덧붙여져, 2, 4연에서는 '기침을 하자'에 '젊은 시인이여', '눈 위에 대고' 등의 시구가 덧붙여져 변주되고 있다. ⑤ 4연에서 '기침을 하자'와 '가래라도 뱉자'는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같은 통사 구조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반복 변주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진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와 '마음껏'은 변주의 장치들이다.

17.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한갓'은 '다른 것 없이 겨우'의 뜻이므로, 이는 국화가 자신에게 슬픔을 준다 하더라도, 국화가 주는 위안이 더 크다는 것을 부각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